

주체사상을 알자

한 경 호 (목사, 본지 편집위원장)

이북에 고향교회를 두고 월남한 일단의 교인들이 2세들과 함께 고향교회 재건축진위원회를 만들어서 통일 후 교회를 건립하려고 건축비를 적립하고 있다. 10여 년의 세월이 흐르며 적립금도 제법 붙어나 지금은 1억 수천만 원이 되었다. 매년 정기총회를 하면서 지금도 통일의 그 날을 그리며 기도하며 내일을 기다리고 있다.

그 모임에 목사 회원이 있어서 가끔 예배 때에 설교를 하곤 한다. 할아버지가 고향교회의 초대장로이고 아버지가 목사로 일생을 마친 3대째 신앙 후손인 그는 살아생전 아버지로부터 들은 고향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 모임에 참석하곤 하였다.

한번은 그 모임에서 설교를 하면서 그 월남 2세 목사 회원은 마침내 하기 힘든 말을 꺼냈다.

“여러분! 만일 통일이 돼서 교회를 지었다고 합시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교회만 지으면 우리 할 일 다하는 것입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이북에는 교인이 거의 없고 있다해도 가정교회 교인 정도인데 교회의 빈자리를 어떻게 채울 것입니까? 우리 다 그리로 이사가서 살 겁니까? 이사갈 분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아무도 이사가겠다는 사람은 없었다. 자주 왕래는 할 수 있겠으나

이제는 생활 토대가 이남에 있으니 가서 살기는 힘들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그러면 결국 그 지역 주민들을 전도해야할 텐데 어떻게 해야 전도를 잘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말이 통한다고, 고향 사람들이라고 전도가 잘 되겠습니까? 그쪽 사람들은 거의 해방 후에 태어난 사람들일텐데 말이에요.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에게 복음이 쉽게 받아들여질까요? 우리가 외국에 나가 선교를 할 때면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와 풍습을 미리 배우고 익혀서 나가지요. 마찬가지로입니다. 북한주민들을 선교할 때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상황에서 오래 살아왔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북한 사람들과 사회를 이해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그걸 제대로 알아야 전도를 효율적으로 할텐데 말이에요.”

이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저는 주체사상을 먼저 알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체사상이 지난 반세기 동안 북한사회와 주민들을 지배해온 중심적인 이데올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졌다. 예배중이라 말은 못하지만 무언가 못마땅한 표정들이 역력하였다. 참석자들의 대다수는 연로한 월남 1세대였고 반공의식이 투철한 분들이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주체사상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평생을 믿음으로 살아오신 분들이 주체사상을 두려워해서야 되겠습니까? 주체사상은 지난 수십 년 간, 짧은 기간 동안 북한이라는 한정된 사회를 지배해온 사상이고, 복음은 수천 년 간 그리고 앞으로도 오랜 기간 이 세상을 지도해갈 능력의 말씀입니다. 비교가 됩니까? 주체사상에 대한 희망망상에서 속히 벗어나야 합니다.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북한 선교올바로 할 수 없습니다. 주체사상을 알고 선교에 임해야합니다. 앞으로, 통일 후의 북한선교는 지금의 냉전외식, 반공외식을 넘어서지 않으면 올바로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북한선교는 교회건물만 세운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고향 그리운 마음으로 감성적으로만 생각

해서도 안됩니다. 보다 이성적이고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배가 끝나자 여기저기서 웅성웅성 하는 소리가 들렸다. 받아들이기 힘든 분위기였다.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다 뺏기고, 당하고 내려온 입장인데 어찌 받아들여지겠는가? 기껏해야 “글쎄, 말은 옳은 것 같기는 한데 어찌 잘 받아들여지지를 않는군요” 였다.

이제 통일을 제대로 준비해야할 때가 되었다. 물론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통일을 준비하고 있는 줄로 안다. 그러나 그 방향과 방법에 있어서는 생각이 많이들 다른 것이 현실이다. 어떤 교회는 북한의 각 지역을 교회 조직들이 맡아서 통일만 되면 ‘쳐들어가’ 교회 세우고 전도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기도 하다. 그 동안 물들었던 ‘악한’ 공산주의 사상을 지워버리고 복음으로 그 자리를 채우겠다고 한다. 다분히 정복주의적 입장이다. 공산주의는 물리쳐야할 ‘악’으로 규정되어 있다. 얼마나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인지, 과연 신학적으로도 올바른 것인지 생각해 볼 일이다.

농촌선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북한은 농업의 비중이 매우 큰 사회이다. 남한과는 농업의 토대가 다르다. 논과 밭의 규모가 남한과 반대이다. 북한 농촌은 아직도 옛날 농촌의 모습을 많이 지니고 있다고 한다. 그것이 언뜻 낙후된 모습으로 보이기도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북한과 남한은 토지제도가 다르다. 생산수단인 토지를 사유화하고 있는 남한과 ‘전인민 소유화’를 하고있는 북한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남북한간 농촌문화의 차이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물론 전통문화의 경우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산업으로써의 농업은 통일 후에도 정책적 필요와 조정을 통해 점차 제 자리를 잡겠으나 농업의 주체인 농민의 의식과 문화의 차이는 극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기독교 신앙은 그 간격을 좁혀서 시간을 단축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 후의 한국농촌과 농촌선교에 대한 그림을 이제부터 차근차근 그려 나가야할 것이다. ❷